

 국토교통부		보도해명자료	
		배포일시	2019. 10. 2(수) / 총 2매(본문2)
담당 부서	국제항공과	담당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과장 신윤근, 사무관 김수정, 황성필 • ☎ (044) 201-4207, 4213, 4211
보도일시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국토부가 ICAO 항공운송심포지엄 개최시 항공사에 무리한 협찬을 강요하는 등 전형적인 ‘갑질’을 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.

- '19.5월, 국내에서 개최한 ICAO 항공운송심포지엄에서 국토교통부가 민간 항공사에 대하여 무리한 협찬을 강요하는 등 전형적인 ‘갑질’을 하였다는 보도내용(10.2)은 사실과 다릅니다.

- ICAO(국제민간항공기구)는 UN 산하의 기구로 전세계 193개 회원국이 활동 중이며, 항공 관련 국제표준이나 안전규정, 법률 등을 총괄하는 국제 민간항공분야 최고 권위의 국제기구입니다.
 - ICAO 항공운송심포지엄은 2년마다 ICAO(국제민간항공기구)가 주관하고 전세계 항공산업계가 참여하는 행사로서, 국토부는 한국의 국제항공분야 위상강화* 등을 위하여 이를 한국에 유치하여 정부 예산(5.9억 원)으로 개최('19.5, 인천, 91개국 850명 참석)하였습니다.
 - * 특히, 금년 제40차 ICAO 총회(9.24~10.4)에서 회원국 투표로 36개국을 이사국으로 선출, 한국도 이사국 지위 유지를 위해 치열한 지지교섭 경쟁 진행
 - 항공업계는 ICAO 주관 행사에 대한 후원 여부를 자사의 판단으로 결정하여 행사에 초청된 외국국적 VIP에 대해 후원을 제공하였으며, 후원사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홍보기회 등 실질적인 혜택*이 부여되었습니다.
 - * 행사장에 홍보·체험부스를 제공하고 무대, 웹사이트, 프로그램북 및 각종 제작물에 후원사 로고를 노출하는 등 국내외 항공업계 관계자에 홍보기회 제공

○ ICAO 행사에는 전세계 항공 관계자의 이목이 집중되는 만큼, 행사 유치국가는 자국 항공산업의 신인도 등을 제고하기 위해 민·관이 협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해외*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.

- * ICAO Blockchain Aviation Summit('19.5, UAE 두바이)
 - UAE항공청, 에티하드항공, 에미레이트항공 등 후원
- ICAO Global Aviation Conference('19.8, 태국 푸켓)
 - 태국항공청, 카타르항공, 타이항공, 방콕에어웨이즈, AOT(공항공사) 등 후원

○ 참고로, 정부와 항공업계가 공동으로 노력한 결과 이번 제40차 ICAO 총회에서의 이사국 선거(10.1)에서 한국이 역대 최고 득표로 당선될 수 있었으며, 앞으로 3년간 국제 항공사회에서의 우리 국익을 대변할 예정입니다.

- * '01년부터 연임해오고 있으며, 이번 당선으로 향후 '22년까지 이사국 지위 유지

< 관련 보도내용 (연합뉴스, 10.2.) >

◆ 운영일 의원 “국토부, 허가권 쥐고 항공사에 무리한 협찬 요구”

- 윤 의원은 국토부가 항공업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바탕으로 항공사에 후원을 강요하는 분위기가 있었으며, 전형적인 ‘갑질’로 볼 수 있다고 주장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제항공과 김수정 사무관(☎ 044-201-4213), 황성필 사무관(☎ 044-201-421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